

臨床心理學者의 役割

—그 回顧와 展望—

李 鉉 洙

(中央大)

요 약

1896년, Lightner Witmer가 Pennsylvania 대학에 心理診療所를 개설하고 *Psychological Clinic*이라는 기관지를 출간한 이래 臨床心理學者의 役割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초창기의 대다수 임상심리학자들은 適應問題를 가진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臨床活動에 전념하였었다.

1949년, 미국심리학회에서는 Boulder會議에서 임상심리학자의 역할을 규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임상심리학은 일차적으로 心理學者로서 충분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그 위에 臨床家로서의 役割과 研究者로서의 役割이 주어졌다. 그러나 실제로 있어서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였다; 즉 臨床家は 研究者의 研究결과를 의면하고 試行錯誤의 方法이나 臨床的 洞察에 전적으로 의존하였었다. 다른 한편 연구자는 臨床場面을 고려하지 못한 연구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임상가에게 도움을 줄만한 업적을 내놓지 못하였다. 결과적으로 두 역할 사이의 괴리현상만 증대할 뿐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6년전, 미국심리학회에서는 Vail會議에서 臨床家들 만을 위한 새로운 專門職學位제도를 제안하였는데 이는 임상심리학자의 두 가지 역할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었다. 이는 학문의 발전을 위해서는 불행한 처사라고 생각된다. 임상심리학자의 역할은 두 개가 아닌, 두가지 측면을 갖는 통합된 하나여야만 한다. 臨床心理學에서는 單一事例; N=1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하며 이를 대상으로 한 實用的 應用研究를 위한 行動統制技術을 개발해 나아가야 한다.

I. 머 리 말

臨床心理學은 인간의 適應問題를 理解하고 治療하기

위해 心理學의 原理를 적용하는 심리학의 한 분과로서 그 역사는 Lightner Witmer가 1896년에 Pennsylvania 대학에 心理治療所를 창설하고 *Psychological Clinic*을 발간한데서 시작된다. 그는 주로 아동의 학업 및 사회적 적응문제를 다루었다. 초창기의 임상심리학은 순수한 臨床的 技術로써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 후 50여년이 지나는 동안에 임상심리학의 성격은 크게 달라졌다; 즉 단순한 臨床的 問題를 다루는 技術에서 學問的 性格이 강조되는 科學으로 변모하였다. 美國心理學會에서는 1947년 臨床心理學者訓練委員會를 만들고 David Shakow를 위원장으로 임명하였다. 이 위원회가 주동이 된 1949년 Boulder會議에서는 “臨床心理學者는 먼저 심리학자의 자격을 갖추고 나서 臨床家이며 동시에 研究者이어야 한다”고 그 자격과 역할을 규정하였다. 이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임상심리학자의 훈련교육과정에서는 學問的 訓練과 現場에서 이뤄지는 臨床實習을 병행하게 되었다.

이와 때를 거의 같이 하여 각국의 심리학회에서는 임상심리학자의 역할을 분명하게 규정하여 발표하였다; 즉 미국심리학회에서는 臨床心理學者의 역할로써 1) 診斷, 2) 治療, 3) 豫防, 및 4) 基礎的 研究를 강조하였고 (Shakow, 1968), 영국심리학회에서는 1) 診斷, 2) 治療, 3) 社會的 復歸, 4) 基礎的 研究, 및 5) 教授를 강조하였다 (Desai, 1967). 이와 같이 두 나라에 있어서 임상심리학자의 역할은 다소 다르게 규정되어 있으나 이들의 역할은 크게 研究者로서의 역할과 臨床家로서의 역할로 양분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이 두 역할 사이의 역학관계는 그렇게 단순하지는 못하다. 오히려 상당히 복잡한 관계이다.

임상심리학자의 연구결과는 임상장면에 종사하는 임상가에게 곧 응용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어렵거나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그 연구가 연구자

제로씨는 훌륭한 업적이 될 수 있을지 모르나 임상적 실용가치가 결여되어 있는 것들이 많다. 임상장면에 종사하는 임상가는 연구자들의 연구결과를 외면하고 試行錯誤的 臨床經驗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臨床的 活動은 인간본성에 대한 깊고 독창적인 지식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와 같은 지식은 연구자의 상아탑 속에서 이뤄질 수 없고 환자와 계속적으로 접촉하는 臨床經驗에서만 이뤄진다.

이러고 보면 연구자로서의 임상심리학자의 역할과 임상가로서의 임상심리학자의 역할은 구분될 수 없고 배타적일 수도 없다. 오히려 상보적 역할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역할은 완전히 통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76년 美國心理學會는 Vail會議에서 臨床心理學者를 위해 研究論文이 부과되지 않는 專問職學位(professional degree) 제도를 만들었다. 이 제도는 臨床心理學者의 자질 향상을 위해 결코 바람직한 처사는 아니다. 두 역할의 병행이 당장 어렵기는 하지만 결코 불가능한 것은 아닐터인데 완전히 “異質的인” 두 개의 역할로 갈라 놓은 결과가 되었다. 이 두 가지 역할은 오히려 동질적인 것이요 분리될 수 없다. 임상심리학자는 研究와 臨床을 병행해야 하고, 연구자와 임상가의 대화는 이뤄져야 한다. 그 위에 임상심리학의 연구 대상은 특정한 個人, $N=1$ 이어야 한다. 그에 대한 연구는 임상적 상황에서 이뤄져야 한다. 단순한 事例研究가 그 方法論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에 대한 實驗的 應用研究를 위한 行動統制技術이 도구가 되어야 한다.

II. 研究者로서의 역할

“普偏妥當한 一般性”을 추구하는 과학자의 태도에 매혹된 임상심리학자들은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一般性을 심리현상에서 찾아 내는 것이 심리학자의 임무라고 생각하였다. 이와 같은 심리학자들의 태도는 얼핏 보기에 꽤 “科學的”인 것 같이 보이나 이는 임상심리학자들이 바라는 개인에 대한 이해에는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와 같은 심리학자, 특히 臨床心理學者들의 잘못된 생각은 一般科學과 心理學이 가지는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비롯되었다; 즉 일반과학의 영역에서는 자연의 일반법칙을 알게 되면 그것으로써 특정한 현상을 이해할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 통

제도 가능하고, 또 기계적인 설명까지도 가능하지만 심리학의 영역에서는 이러한 논리가 그대로 통용되지 않는다; 즉 인간의 일반심리법칙을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써 어떤 특정한 개인의 심리상태를 이해할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고, 또 기계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떤 특정한 개인을 이해하려고 할 때 一般心理的 法則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것은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에 대한 이해가 크게 잘못되는 수도 있다. 그 개인이 가지는 特殊性만이 그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심리학자들은 一般性에 대한 추구에만 관심이 있었다. 이는 다분히 일반과학자들의 태도에 매혹된 탓인데 特殊性의 法則은 일반과학의 연구대상이 될 수 없다는 순수과학자들의 고정관념 때문이다.

순수과학자들은 대상을 分析하고, 概念化하고, 그리고 一般化시키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에 심리학자들 가운데도 이와 같은 수속절차를 그대로 통용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 좋은 예로 Edward Bradford Titchner (1867~1927)를 들 수가 있다. 그는 심리학에 있어서 개인의 經驗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실제 그가 이룩한 업적은 추상적이며 개념적 경험에 대한 一般法則 뿐이다. 科學的 方法論에서는 理論의 비중을 크게 보고 그것을 검증하기 위하여 假說—演繹法을 쓰기도 하고 실험자료를 歸納的 方法으로 처리하기도 한다. 어떤 형태의 방법을 쓰던 간에 궁극적 목표는 一般性을 추구하는데 있다. 사실상 현재 통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一般法則들이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해서 발견된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들의 영향을 받은 심리학자들은 일상적으로 假說—演繹法에만 의존하여 왔기 때문에 풍부한 심리학적 지식을 축적하는데 실패하였다.

理論은 새로운 科學的 事實을 발견하는데 있어서 절대적 기능을 가진다는 것이 전통과학의 기본사상이다. 그러나 이론구성은 쉬운 작업이 아니다. 가장 수준이 높은 知的 能力을 필요로 한다. 아무리 훌륭한 발견이라고 하더라도 이론적 설명이 불가능할 때에는 어떠한 의미도 가지지 못한다. 물론 심리학적 연구에 있어서도 이론의 비중은 크지만 일반과학의 영역에 있어서와 같이 쉽게 통용될 수는 없다. 왜 그런가 하면 인간행동의 범위는 넓을 뿐만 아니라 복잡하고 아직

* Horace Walpole (1717~1797)는 科學的 發見에 있어서 우연적 발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serendipity”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에는 偶然히 “무엇을 찾아낸다”는 뜻과 “뜻밖에 재수 좋은 발견을 한다”는 뜻이 내포되었다.

미해결의 문제가 많기 때문이다. 심리학적 연구의 영역에서는 推定(guess)과 같은 방법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심리학자들간에 쉽게 받아 들여지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즉 추정과 같은 것은 일반과학의 영역에서 받아 들여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대신 假說檢證과 같은 방법을 쓰고 있다. 그러나 그 본질을 따지고 보면 심리학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만큼 단순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심리학자는 알게 된다. 심리학자에게는 단순한 好奇心을 해결하기 위한 실험이 보다 유익할 때가 있다. 이러한 방법은 비록 이론은 결여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설검증을 위한 엄격한 실험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호기심이 과학적 발견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너무 과소평가 하고 있다. 사실 호기심이 우연적 사실을 발견하는데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된다.

과학의 영역에서는 자료의 信憑性을 크게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서 심리학자들 가운데는 그들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 많다. 물론 믿을 수 없는 測定値 자체를 과학의 영역에서 다룬다는 것은 무의미하기 짝이 없지만 그것을 너무 강조해도 꼭 같은 결과를 가져 온다. 왜 그런가 하면 신빙성 그 자체는 “偶然的 確率”을 수학적으로 산출한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우연의 확률이 비교적 낮은 것만을 과학에서는 신빙성이 높다고 보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로 보면 아무리 精密科學이라고 하더라도 우연의 확률이 완전히 배제될 수는 없다. 다만 그 확률이 낮을 뿐이다. 偶然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실험장면에서 작용하기 마련이다. 이것은 통제되지 못한 요인들의 효과로써 잘못된 實驗結果에 대한 변명이 될 수도 있고 통제될 수 없는 變因을 미리 찾아 내지 못한 無知에 통할 수도 있다. 과학자들은 이 변인에 의해서 결정된 결과를 統計的方法으로 분석하는데 이는 곧 능동성이 결여된 무지를 받아 들이는 결과가 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과학의 본래 사명과 크게 다르다(Sidman, 1960).

과학에서 쓰는 통계적 방법은 無知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특정한 개인의 심리상태를 연구하는데 그대로 받아 들여질 수가 없다. 實驗場面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일관성있게 관찰한 결과에 의존하지 않고는 인간이해에 도움이 될 확률이 높아질 수가 없다. 과학에서 이론이 없이는 현상에 대한 설명이 불가능한 것과 같이 심리학에서는 行動統制技術이 없이는 특정개인에 대한 이해는 기대할 수 없다(Fester and Skinner, 1957). 統計的方法이 과학에서는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역사는 벨지움의 天文學者 Adolphe Quetelet (1796~1874)에서 시작되었

다. 그는 “보통사람, average man”을 이해하기 위해서 測定値의 誤差와 變量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統計的測定을 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은 Ronald A. Fisher에 의해 급진적으로 발달하여 統計的檢證法, 推理統計法이 나오게 되었으며 標集을 가지고 母集을 신빙성 있게 추리할 수 있게 되었다. 후에 Francis Galton 卿 (1822~1911)과 Karl Pearson (1857~1936)은 個人差研究의 영역을 확대하였고 相關關係法이나 要因分析法과 같이 수준이 높은 記述的 統計法의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다. 이들의 영향을 받은 Alfred Binet(1857~1911)는 知能檢査를 만들었다.

이들 대부분의 연구는 集團間의 比較法으로써 臨床研究와 臨床場面에는 별로 큰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왜 그런가 하면 무엇 보다도 임상장면에서는 同質의이거나 조건이 비슷한 사례를 많이 얻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 치료 장면에서는 동일한 조건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기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치료 집단에 대한 치료를 중단하거나 일시유보해야 하는데 이는 치료자로서의 윤리에 크게 위배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Paul and Lent, 1977).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집단의 비교를 위해서 쓰여진 實驗結果는 실제 임상장면에 적용하기가 어렵거나 거의 불가능하다(Barlow, 1980). 일반통계적 방법에서 흔히 쓰는 有意性檢證法을 예로 들어 보자. 이는 일반과학의 영역에서는 크게 誤謬를 범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별로 쓰여지지 않는데 아직도 심리학자들은 심리치료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그 방법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유의미도검증법은 偶然的 確率을 따지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아무리 정확하게 해석한다고 해도 환자의 치료 효과를 따지는데는 부적절하다. 이러한 사실만 보더라도 심리학이 전적으로 통계적 방법에 의지하는 것은 심리학사상 가장 비참한 역사적 사실임에 틀림없다(Meehl, 1978).

Ⅲ. 臨床家로서의 역할

臨床家로서의 역할은 “事例研究”에서 비롯되었다. 왜 그런가 하면 임상심리학의 역사를 통해서 임상가들이 가장 크게 의존해 왔기 때문이다. 이 방법은 實驗的方法과는 크게 대조를 이루는 것으로써 개인의 逸話的情報를 가지고 그 개인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기술하는 것으로 實驗的 統制가 결여되어 있다. 사례연구법은 특정한 대상에 대한 세밀한 관찰에서 자료를 얻는데 이는 假說設定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 또 이 방법은 實驗的 統制가 결여되어 있기는 하지만, $N=1$,

單一事例에 대한 실험연구의 기반을 닦아 주었다. 또 이 방법은 臨床的 方法으로는 가장 역사가 깊은 것으로 探索的 機能을 가지고 있다. 특정한 개인을 바탕으로 개인 특유의 假說을 설정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임상가에게 풍부한 지식을 제공하는 것도 事例研究 法이다. Emil Kraepelin (1856~1926)이 환자를 기술하는 수단으로, 또 정신과의사가 精神醫學의 診斷을 위해 이 방법에 의존하였다. 사례연구법은 精神醫學에서 뿐만이 아니고 精神治療, 兒童發達, 社會變化에 수반되는 개인의 변화, 성격형성 및 의사소통의 연구에도 응용된다. 원래 모든 미개척분야에 손을 댈 때에는 사례연구법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 “事例研究, case study”라는 말은 정신의학에서부터 쓰여지기 시작했는데 “事例”라는 말은 신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장애를 받은 사람으로서 臨床家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총칭하였으나, 근래에 와서는 그 의미가 훨씬 확대 사용되고 있다.

사례연구에서 중요한 것은 “事例史, case history”이다. 이는 환자의 질병에 대한 기록으로써 거기에 치료과정에 대한 기록이 첨부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사회과학자들이 쓰는 “生活史, life history”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개인에 대한 기록을 의미한다. 사례사는 개인에 대한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그에 대한 心理檢査의 結果는 물론 醫務記錄과 社會生活史까지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사례사연구는 이 자료를 과학적으로 분석, 연구하는 방법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實驗的 統制가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變化의 機制를 분리시킬 수도 없고, 變因에 대한 定義가 어렵다. 특히 獨立變因에 대한 操作은 극히 어렵다 (Leitenberg, 1973). 이와 같은 사실은 Josef Breuer (1842~1925)가 히스테리 환자로 진단된 Anna O.의 치료결과에서 충분히 입증하고 있다. Breuer는 1895년부터 精神分析法, 催眠法 및 通話法으로써 그녀를 치료하기 시작하였다. 치료과정에서 아버지의 죽음에 결정적인 원인요소로서 작용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점을 빼놓고는 그녀가 왜 치료되었는지는 설명할 수가 없었다. 그 때 Breuer가 多重基底線을 염두에 둔 實驗計劃法에 의한 실험계획을 세워 접근하였더라면 그 原因的 要素를 정확하게 분리시킬 수 있었을 것이며, 그것으로써 그 치료방법이 분명히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자신있게 말할 수 있었을 것인데 그렇게 되지 못한 점 크게 후회스럽다.

불행하게도 초창기의 임상가들은 $N=1$, 單一事例研究의 기본원리에 대한 연구가 없었기 때문에 사례연구로서 그쳤거나 그것으로써 만족한 나머지 그것을 單

一事例實驗研究로 연결시키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無知 때문에 1940~1950년대에는 事例研究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1950년 초반기부터는 통제가 결여된 사례연구는 치료효과를 적절하게 평가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거의 자취를 감추고 行動治療法에 의존하기 시작하였다.

IV. 折衷的 役割

臨床心理學者는 연구자로서의 역할과 임상가로서의 역할이 완전히 통합된 단일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절충적 역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급증하였다. 이들은 연구자들이 이룩한 심리학적 지식과 임상가들의 試行錯誤에 의한 임상경험이 완전히 통합될 때 특정한 개인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다고 한다 (Garfield and Kurtz, 1976). 또 임상심리학자에게는 기초이론에 대한 연구 보다는 臨床과 學問的 活動이 통합된 지식이 필요하다고 한다 (Leitenberg, 1974). 이와 같은 折衷的 役割에 대해서는 1949년 美國心理學會의 Boulder會議 때 이미 규정한 바가 있었다. 불행하게도 1931년 미국심리학회(Vall)會議에서는 연구자로서의 역할과 임상가로서의 역할은 절충될 수 없는 것으로 양분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Joint Commission on Mental Illness and Health, 1961). 이와 같은 양분된 역할에 대한 규정이 있는 20년 후 지금까지도 그 효력은 사실상 존재하고 있다. 실제 임상심리학자에 대한 훈련에서는 연구자로서 혹은 임상가로서 완전히 분리시키고 있다 (Garfield, 1974).

이와 같이 두 역할이 통합된 단일의 임상심리학자의 역할이 될 수 없는 그 원인은 무엇보다도 부적절한 교육·훈련에서 찾아야 한다. 臨床場面을 의면한 연구자들의 연구가 임상장면에 응용될 수가 없었고, 임상가들은 試行錯誤的 方法으로 접근하고 있었다는 것이 두 역할을 통합시킬 수 없는 큰 장벽이 되었다. 臨床家들이 부적절한 방법으로 임상장면에서 일어 나는 일을 처리하고 있다는 것도 지적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치료의 효과를 검증할 목적으로 일반 통제적 방법에서 쓰는 有意味度檢證法을 쓰는데 이와 같은 통제적 방법은 다른 과학의 영역에서는 이미 쓸모가 없거나 부적절한 방법이기 때문에 쓰여지지 않고 있는 데도 臨床家들은 여전히 즐겨 쓰고 있다 (Carver, 1978). 그러므로 臨床家들의 研究水準이 非臨床家들의 연구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Barlow, 1980). 이들의 연구는 연구 자체로서는 가치가 있을지 모르나 臨床場面에는 통용되지 않는다 (Barlow, 1981).

위에서 지적한 研究와 臨床간의 괴리 현상을 Matta-razo는 이렇게 회상하고 있다. “내 자신이 이룩한 15년 동안의 연구결과는 실제로 임상장면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는 곧 심리학에서의 과학적 발견이 임상가에게 전혀 쓸모가 없는 지식임을 말하고 있다. 임상심리학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臨床的 經驗뿐이다”(Bergin and Struph, 1972). 이와 같은 사실은 연구에 종사하는 임상심리학자나 임상에 종사하는 임상심리학자 모두 반성해야 할 일이다. 피차간에 영향을 줄 수도 없고 또 받을 수도 없는 임상심리학자의 두 역할의 비극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연구자로서 임상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또 臨床家로서 연구에 관심이 있는 사람도 거의 없다는 연구가 발표되었는데 이는 곧 研究者——臨床家の 역할이 완전히 통합될 수 없고 오히려 분명히 분리된 専門職으로 밖에 간주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Peterson, 1976; Korman, 1974). 특히 臨床家の 업적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들은 인간 본성에 대한 지식보다는 시행착오적인 임상경험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이 입증된 것으로 볼 수 있다(Garfield and Kartz, 1976).

V. 個別分析者로서의 역할

“같은 시간에 수천 마리의 쥐를 다루는 것 보다는 한 마리의 쥐를 수천 번 반복 관찰 측정하는 것”이 $N=1$, 單一事例研究의 기본철학이다. 심리학에 있어서 $N=1$ 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 Edward Case Tolman (1886~1959)과 Gordon Willard Allport (1897~1967)가 대화하는 가운데 전자가 “나는 個別分析法이 심리학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그 방법을 모르겠다”고 하자, 후자, Allport가 “그러면 내가 가르쳐 주지”하고 대화가 계속되었다. 이 대화속에는 여러 가지 함축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 우선 심리학의 모든 분야에서 $N=1$, 單一事例에 대한 연구가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도 알 수가 있고, 또 Allport는 性格연구에서 이미 선구자적 입장에서 그 방법을 쓰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心理學과 生理學의 역사는 이미 오래전에 單一事例研究로 부터 시작되었다. 생리학의 영역에서는 1830년에 Johannes Müller(1801~1858)와 Claude Bernard (1813~1878)가 $N=1$ 에 대한 연구로써 큰 업적을 남겼다. 심리학의 영역에서에서는 1860년에 Gustav Theodor Fechner (1801~1887)가 인간의 感覺能力測定을 위해 같은 방법을 썼다. 이들의 전통을 이어 받은

Wilhelm Wundt (1832~1920)는 感覺과 知覺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를 위해 같은 방법을 썼다. 이들의 연구는 기초적 연구였지 임상적 응용을 위한 연구는 아니었다.

최초의 임상적 응용연구로는 1861년에 Pierre Paul Broca (1824~1880)의 업적을 들 수 있다. 그는 大脳損傷者에 대한 임상적 연구를 통해 言語中樞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 연구는 應用生理學的 研究로는 처음이라는 점에서, 또 單一事例에 대한 反覆實驗法을 썼다는 점에서 생리학의 발전에 큰 공헌을 한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心理學史에 남는 單一被驗者를 대상으로 한 연구업적은 많이 있다; Hermann Ebbinghaus(1850~1909)의 記憶과 忘却法則實驗에 사용한 피험자도 한 사람이었고, 1895년에 Breuer가 히스테리의 기제를 연구하는데 기여한 환자도 Anna O. 한 사람이었다. (Breuer and Freud, 1957). 이들의 연구가 모두 근 100년전에 발표된 것이기는 하나 時繼法(time series method)으로 간주할 수 있는 科學的 方法을 썼다는 것은 특기할 만 하다. Toulouse는 天才의 心像과 記憶에 대한 연구에 프랑스의 유명한 수학자 Jyles Henri Poincaré (1854~1912) 한 사람만을 피험자로 썼다. John Broadus Watson(1878~1958)과 Rosali Rayner가 恐怖症의 기제를 이해하고 치료하기 위한 실험에서 꼬마 Albert 한 아이를 피험자로 썼다. 실험과정에서 사소한 과오를 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實驗計劃 자체는 현대식 방법론에 비추어 보아도 큰 손색이 없다(Watson and Rayner, 1920). Ivan Petrovitch Pavlov (1849~1936)는 唾液反射에 대한 실험을 위해 개 한마리를 대상으로 수천 번 반복 실험하였다(Pavlov, 1927). Sigmund Freud (1856~1939)가 恐怖症의 형성과정을 기술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세살짜리 꼬마 Hans 한 아이에게서 얻었다(Freud, 1953). Burrhus Frederic Skinner (1904—)가 오퍼런트 條件化實驗에 비둘기를 썼는데 여러 마리 비둘기의 행동을 같은 시간에 관찰 측정한 것이 아니다. 한 마리 비둘기의 행동을 일관성 있게 계속 반복 관찰하고 거기에서 얻은 자료를 가지고 이론을 체계화하였다. 또 인간의 심리적 유토피어를 전설하기 위한 行動統制의 可能性을 실증한 것도 그녀의 딸 Cyclist Debora Skinner 한 사람이었다. $N=1$, 單一事例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臨床心理學의 영역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發達心理學의 영역에도 많이 적용되었다. 이들 대부분의 연구들이 자기 아이의 행동을 일관성 있게 반복 관찰하여 얻은 자료를 정리한 것으로 兒童心理學이 古典的 教科書가 되었다(李鉉洙, 1978). 이들의 연구

는 科學的 方法을 도입했다는 의미 보다는 $N=1$, 單一事例의 비중을 크게 평가하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해야 한다.

본격적인 $N=1$, 單一事例研究의 方法論 개발에 크게 공헌한 것은 Monte Shapiro의 선구자적 연구업적들이다. 그는 Maudsley病院에서 1951년부터 個別現象에 대한 科學的 研究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하여 1979년 그가 67세로 그곳을 떠날 때까지 그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였다 (Shapiro, 1961, 1966). 그가 單一事例研究의 方法論에 손을 대자 Institute of Psychiatry의 회보인 Report에서는 큰 사업이 시작된 것으로 광고하였고, Eysenck 教授는 “그가 기술적으로 어려운 일에 착수한 것은 $N=1$ 方法論의 발전에 큰 공헌이 될 수 있을 것이며, 그것이 성공하면 곧 方法論의 成熟이며 治療와 研究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또 Rorschach 테스트나 精神治療에 의존하고 있는 심리학자들이 자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크게 평가하였다.

그는 단일사례를 대상으로 한 응용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 한 방법으로 개인의 反應을 조심스럽게 또 반복적으로 되풀이 측정하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특히 測定值의 變散度는 治療의 혹은 環境的 影響에 의한 것이라고 가정하고 그것을 실험적으로 입증하는데 성공하였다. 그의 대부분의 연구는 相關係數的 方法에 의한 記述的 研究라는 점에서 크게 평가할만하다. 그가 남긴 공헌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임상장면에서 獨立變數는 무엇이고 또 그것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操作할 것인가에 대해 반드시 구체적으로 밝혔다는 점이다 (Shapiro and Ravenette, 1979). Shapiro의 일련의 연구는 단순한 實驗操作研究와는 다른 것으로 單一事例의 치료효과를 평가하는데 도움을 주는 특수한 방법이다. Shapiro의 방법은 獨立變數를 찾아 그것을 체계적으로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순한 治療技術이라기 보다는 “올바른” 實驗研究를 위한 方法論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래서 그의 연구는 實驗臨床心理學派*의 中核을 이루는 방법으로 知覺異常·精神運動欠陷·老人性障礙에서 오는 行動障礙의 연구에 크게 기여하였다 (李鉉洙, 1978).

또 하나의 單一事例研究法으로 類似實驗的 方法(quasi experimental method)을 들 수가 있다. 이 방법은 집단이나 개인에 대한 연구에 적용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Campbell and Stanley, 1963). 時繼的 方法

(time series design)과 同等時繼的 方法(equivalent time series)으로 불리우는 방법도 $N=1$, 單一事例에 대한 연구에 공헌하였는데, 전자는 Shapiro의 方法과 비슷하다. 예를 들면 치료과정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行動變化를 계속적으로 관찰하여 基底率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후자는 실험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獨立變數를 實驗的으로 操作하여 原因-結果의 函數關係를 관찰한다 (Hayes, 1981). 치료자와 從屬變數와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傾向分析法(trend analysis)과 같은 相關係數方法을 쓰기도 한다 (Chassana, 1967).

$N=1$, 單一事例의 研究法이 하나의 方法論으로서 기반을 닦게 된 것은 Shapiro와 Chassana의 노력에 의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실제 임상장면에서의 활용은 극히 저조하다 (Hersen and Barlow, 1976). 이와 같은 사실은 Shapiro가 1965년 美國心理學會 Eastern Psychological Association 초청연설에서 자신의 연설이 $N=1$, 單一事例研究法의 발전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제하면서 전적으로 시인하였다. Shapiro가 應用研究에서 실제 측정된 것은 간접적이고 주관적인 것으로서 직접적 行動效果에 대한 관찰을 도외시하였다. 또 Shapiro나 Chassana의 精神治療에 대한 연구에선 임상가들이 납득할 만한 뚜렷한 효과를 측정해 내지 못했다. 왜 그런가 하면 獨立變因에 대한 정의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精神治療의 영역에서는 연구의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는 점도 들지 않을 수가 없다 (Leitenberg, 1973).

다행히도 1960년대의 말에 單一事例研究는 Skinner와 그의 제자들에 의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1968년에는 *Journal of Applied Behavior Analysis*가 출간되었는데 이를 계기로 단일사례연구는 본격화되고 心理學과 精神醫學의 영역에서는 實驗的 方法으로 行動을 分析하는 實驗(experimental analysis of behavior)이 일어나고 학술잡지에는 응용연구방법을 쓴 연구가 계속적으로 발표되기 시작하였는데 이것이 곧 行動治療 혹은 行動修正으로 불리워지게 되었다.

行影에 대한 實驗的 分析者들은 개인 행동에 대한 集中的 研究를 강조하였다. 이들은 과학적 방법으로 통용되는 集團間의 比較法 대신 Claude Bernard의 生理學的 方法에 따라 충분히 통제된 條件下에서 단일 사례를 반복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측정하였다. 그

* 여기서 “實驗”이라는 말에는 전통적인 의미는 전혀 없는 것으로서 客觀性이나 科學性과 같은 의미는 내포되어 있지 않다.

들은 “매시간마다 수천 마리의 쥐를 연구하는 것보다도 10시간 마다 수백 마리의 쥐를 연구하는 것보다는 한 마리의 쥐에 대해서 수천 시간 연구하는 것이 개체의 행동특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Skinner, 1966).

$N=1$, 單一事例의 實驗研究方法論 발전에 큰 공을 남긴 사람으로 Murray Sidman을 들지 않을 수가 없다. 그는 1960년에 출판한 그의 저서 *Tacts of Scientific Research*에서 行動의 實驗的 分析에 대한 方法論을 자세하게 소개하여 연구자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Sidman, 1960). 이 새로운 研究策略은 응용연구자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일반심리학의 원리와 사회심리학의 원리를 臨床場面に 활용하는 行動治療者들은 目標行動(target behavior)을 설정하고, 獨立變因을 조작하는 기술을 도입하여 治療效果를 측정하게 되었다.

行動治療者들이 크게 의존하고 있는 “學習原理”의 대부분이 條件化의 原理인데 이것이 과연 응용분야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효율성이 있는 것인지 그 이론의 효율성을 행동치료자가 스스로 검증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이를 바탕으로 行動治療의 技術을 개발하게 되었다(Agras, et al, 1971; Barlow, et al, 1969). 다른 한편 動物實驗研究方法이 “應用行動分析”에 그대로 적용되면서 행동치료의 附加的 技術이 되어 지금까지 즐겨 쓰던 集團間比較法의 代用方法이 되었다. 초기의 單一事例研究法, 특히 時繼의 方法에서는 특정한 개인을 일관성있게 반복적으로 관찰 측정하는 것으로 만족하였으나 근자에 와서 統計的 方法에 의한 처리가 불가피하게 되었다(Hersen and Barlow, 1976). 그러나 이들이 쓰는 통계적 방법은 Ronald A. Fisher의 전통적 분석방법과는 비교될 수가 없다. 다만 개인의 행동 변화과정을 평가하는 정도에서 그치고 있다 (Michael, 1974).

研究者와 臨床家의 역할을 절충한 單一事例研究의 方法論으로 現場觀察法(intensive local observation method)을 들 수가 있다. 이 방법은 현장을 철저하게 관찰하므로써 자료를 얻는데 그 특징이 있다. 개체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실을 기술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統制變因은 물론 統制되지 않는 變因에 대해서도 관찰 기록한다. 그 외에도 피험자의 性格要因에 대해서 세심하게 관찰 기록한다. 이와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통제되지 않은 變因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一般化시켜야 한다. 이 방법을 臨床場面に 응용할 때에는 統計的 方法에 의한 것보다는 臨床的 方法에 의하여 치료에 도움을 주는 변인과 치료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변인을 변별해야 한

다(Cronbach, 1975).

단일 사례의 연구에 통계적 방법을 적용하는 데는 찬·반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어떤 특정한 行動의 基底率(基率)이 없든지, 그 효과가 불확실한 새로운 變因이 발견되었을 때, 개인의 반응 범위가 너무 클 때가 많기 때문에 통계적 방법은 필수 불가결의 방법이라는 것이 찬성자들의 의견이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단일 사례의 연구에는 통계적 방법이 적용될 수 없다는 반대론자들도 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무엇보다도 評價의 基準이 문제된다. 臨床的 基準에서는 무엇보다도 개인의 行動變化의 “有意味度”가 문제된다. 이 의미도는 단순한 통계적 의미와는 전혀 다르다.

한 개인에서 나타나는 조그마한 行動變化는 臨床的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또 行動變化의 정도가 實驗操作에 의한 것으로써 신빙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臨床的으로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정신병 환자의 妄想이 80%에서 40%로 줄어 들었다고 해서 의미있는 變化로 생각할 수가 없다. 臨床的으로 의미가 있다는 것은 괴이한 행동의 빈도가 줄어 들고 “正常的 社會的 交渉”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것은 객관적 자료에 의해서 행동을 평가할 때 그 행동변화가 뚜렷하고 최초의 행동목표가 달성되었을 때를 두고 말한다 (Hersen and Barlow, 1976).

VI. 맺 는 말

위에서 臨床心理學者의 여러 가지 서로 다른 役割을 개관하였다. 초창기의 임상심리학자들은 臨床的 問題를 해결하는 臨床家로서의 역할만이 크게 강조되었다. 그 후 50여년 동안에 임상심리학자의 역할에는 큰 변혁이 생겼다. 美國心理學會 Boulder會議에 따라 임상심리학자에게는 무엇보다도 먼저 순수한 心理學者로서의 역할이 강조되었고 그리고 나서 臨床家이며 研究者로서의 二重役割이 기대되었다.

그러나 연구자로서의 역할과 임상가로서의 역할은 병행되질 못하였다. 연구에 관심이 있는 사람과 임상활동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서로 배타적이었다; 즉 臨床家は 臨床的 問題를 해결하는 데 연구자의 전전한 연구결과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試行錯誤的 臨床的 方法에 의존하였다. 사실상 연구자는 臨床場面(場面)을 외면하거나 臨床的 實用價值가 결여된 연구에만 관심이 있다. 그들의 업적이 연구자체로써는 가치가 있을지 모르나 임상장면에서의 응용은 어렵거나 거의 불가능한 것들이 많다. 이와 같은 배타적 태도는 Vail會議에 따라 서로

고무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臨床心理學者에게는 研究論文이 부가되지 않은 專門職學位를 주도록 규정하였다. 理想的으로나 現實的으로 臨床心理學者는 Boulder會議의 결정에 따라 研究者로서의 役割과 臨床家로서의 役割이 併行되어야 한다. 研究의 對象이나 方法은 전통성에서 탈피해야 한다. $N=1$, 單一事例를 대상으로 한 行動統制技術을 개발하여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특정 개인을 접근할 줄 아는 臨床家이며 研究者라야 한다.

參 考 文 獻

- Agras, W.S. et al., Relation in systematic desensitization. *Arch. Gen. Psychiat.*, 1971, 25, 511~4.
- Barlow, D.H., Behavior therapy: the next decade. *Behav. Ther.*, 1980, 11, 315~28.
- Barlow, D.H., On the relation of clinical research to clinical practice: current issues, new direction. *J. Consult. Clin. Psychol.*, 1981, 49, 147~55.
- Barlow, D.H. et al., Experimental control of sexual deviation through manipulation of noxious scene in covert sensitization. *J. Abnorm. Psychol.*, 1969, 74, 596~601.
- Bergin, A., and Struph, H., *Changing Frontiers in the Science of Psychotherapy*. Chicago; Aldin-Atherton, 1972.
- Breuer, J., and Freud, S., *Studies on Hysteria*. New York; Basic Books, 1957.
- Campbell, D.T., and Stanley, J.C., Experimental and quasi-experimental design for research on teaching. In N.L. Gage, (Ed.) *Handbook of Research on Teaching*. Chicago; Rand-McNally, 1963.
- Caver, R.P., The Case against statistical significance testing. *Harvard Educat. Rev.*, 1978, 48, 378~99.
- Chassana, J.B., *Research Design in Clinical Psychology and Psychiatry*. New York; Appleton-Century Crofts, 1967.
- Cronbach, L.J., Beyond the two disciplines of scientific psychology. *Amer. Psychologist*, 1975, 30, 116~27.
- Desai, M., The concept of clinical psychology. *Bull. of the Brit. Psychol. Soci.*, 1967, 20, 29~39.
- Ferster, C.B., and Skinner, B.F., *Schedules of Reinforcement*. New York; Appleton-Century Crofts, 1957.
- Freud, S., Analysis of a phobia in a five year old boy. In *Collected Papers*, Vol. 3. London; Hogarth, 1953.
- Garfield, S.L., *Clinical Psychology: The Study of Personality and Behavior*. Chicago; Aldine, 1974.
- Garfield, S.L., and Kurtz, R., Clinical psychologists in the 1970s. *Amer. Psychologist*, 1976, 31, 1~9.
- Hayes, S., Single case experimental design and empirical clinical practice. *J. Consult. Clin. Psychol.*, 1981, 49, 193~211.
- Herson, M., and Barlow, D.H., *Single Case Experimental Design: Strategies for Studing Behavior Change*. New York; Pergamon, 1976.
- Joint Commission on Mental Illness and Health. *Action for Mental Health*. New York; Science Editions, 1961.
- Korman, M., National conference on level and patterns of professional training in psychology: the major themes. *Amer. Psychologist*, 1974, 29, 441~9.
- Leitenberg, H., The use of single-case methodology in psychotherapy research. *J. Abnorm. Psychol.*, 1973, 82, 82~101.
- Leitenberg, H., Training clinical researchers in psychology. *Prof. Psychol.*, 1974, 5, 56~69.
- Meehl, P.E., Theoretical risks and tabular asterisks: Sir Karl, Sir Ronald, and slow progress of soft Psychology. *J. Consult. Clin. Psychol.*, 1978, 46, 806~35.
- Michael, J., Statistical inference for individual organism research, missed alessing or course. *J. Appl. Behav. Anal.*, 1974, 7, 647~53.
- Paul, G.L., and Lentz, R.T., *Psychological Treatment of Chronic Mental Patients: Milieu versus Social Learning problems*.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77.
- Pavlov, I. P., *Conditioned Reflexes: An Investigation of Physiological Activity of the Cerebral Cortex*.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27.
- Peterson, D., Need for doctor of psychology degree in professional psychology. *Amer. Psychologist*,

1976, 31, 392~8.

Shakow, D., Clinical Psychology. In D. Sills (Ed.)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Social Science*. New York; McMillan, 1968.

Shapiro, M. B., The single case in fundamental clinical psychological research. *Brit. J. Med. Psychol.*, 1961, 34, 255~67.

Shapiro, M. B., The single case in clinical psychological research. *J. Gen. Psychol.*, 1966, 74, 7~23.

Shapiro, M. B., and Ravenette, A. J., A preliminary experiments of paranoid delusions. *J. Ment. Sci.*, 1959, 295~312.

Sidman, M., *Tactics of Scientific Research: Evaluating Experimental Data in Psychology*. New York; Basic Books, 1960.

Skinner, B. F., Operant behavior. In W. K. Honig, (Ed.) *Operant Behavior: Areas of Research and Applications*. New York; Appleton Century Crofts, 1966.

Watson, J. B., and Rayner, R., Conditioned emotional reactions. *J. Exp. Psychol.*, 1920, 30, 1~14.

李鉉洙, N=1: 單一事例研究의 論理. 人文學研究, 1978, 6, 1~14.

The Role of Clinical Psychologists —Its Retrospectives and Prospectives—

Hyun Soo Lee

Abstract

After Witmer's establishment of psychological cli-

nic at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in 1896 and publication of *Psychological Clinic*, a lot of changes occurred in the role of clinical psychologists. In the initial stage of development, the majority of clinical psychologists engaged in clinical work. They put special emphasis on helping school children who were suffering from social and academic adjustment problems.

In 1949 APA Boulder Conference declared the role of clinical psychologists. According to it, first of all, they should be fully qualified as psychologists, and then two roles, as a practicing clinician as well as a researcher, were required.

Unfortunately, there was a growing split between two required roles; Practicing clinicians who engaged in (work at) clinical settings neglected the clinical researchers' findings. They solely depended on trial and error methods or clinical insight in the clinical practice.

On the other hand, Researchers were unlikely to engage in research which could influence practicing clinicians. As a result their research findings were incompatible with clinical realities.

Recently APA Vail Conference had offered a new professional degree system for practicing clinicians, which might suggest the official full acceptance of separated two roles rather than integrated ones. Realistically as well as idealistically, two roles should be integrated into one with two different aspects. In practice and conducting research, clinical psychologists have to realize the paramount importance of the single subject, N=1. This does not mean one of radical changes but a renaissance in the field of clinical psychology.